



2012 군무원 문항(복원) 및 해설

전) 비타에듀 언어영역
전) 이투스 청솔학원 언어영역
전) 메가스터디 언어영역
현) KG패스원 국어

저서) 2013 EBS 검토
2012 자이스토리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 시리즈
디딤돌 EBS의 모든 것 시리즈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비문학
네오뱅크 완소국 국어능력인증
네오뱅크 구슬담 국어능력인증



문 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게 사용된 것은?¹⁾

- ① 어른 앞에서는 행동을 살가해야 한다.
- ② 그렇게 조그만 일에 빠지다니 큰일을 못할 사람일세.
- ③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 ④ 한참을 웃었더니 얼굴이 뺨졌다.

문 2. 다음 중 고유어와 그 의미가 틀린 것은?²⁾

- ① 낱가리 : 낱알이 붙은 곡식을 쫀 더미
- ② 시나브로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 ③ 칠칠하다 : 주접 들고 단정하지 못하다
- ④ 속손톱 : 손톱의 흰 부분

문 3. 다음 중 ‘벗다’의 반의어가 아닌 것은?³⁾

- ① (짐을) 부리다 ② (춘터를) 입다
- ③ (양말을) 신다 ④ (책임을) 지다

문 4. 다음 중 준말이 틀린 것은?⁴⁾

- ① 성실하지 않다(성실잖다) ② 넉넉하지 않다(넉넉잖다)
- ③ 만만하지 않다(만만잖다) ④ 변변하지 않다(변변잖다)

문 5. 다음 중 어법에 틀린 표현은?⁵⁾

- ① 읊도록 ② 꺾으면
- ③ 잊었느냐? ④ 굵어서

문 6. 다음 중 어문규정에 맞는 단어로 묶인 것은?⁶⁾

- ① 일찌기, 더우기 ② 믿음으로서, 지나놓고, 것ियो
- ③ 걸고, 수풀 ④ 아니, 으레

문 7. 다음 중 단어의 어휘 활용으로 맞는 것은?⁷⁾

- ① 주부들은 부담 없이 가구를 장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 ②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국토 순례단에 나도 끼어 가기로 하였다.
- ③ 너 요새 허리가 많이 굽어진 걸 보니 통 운동을 안 하는 모양이다.
- ④ 갓 태어난 병아리들의 노란 솜털이 봄기운을 한껏 느끼게 했다.

문 8.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⁸⁾

- ① 집에 도착하는 대로 연락해.
- ② 음식을 닥치는 대로 꺼내 먹었다.
- ③ 나는 마음대로 산다.
- ④ 기행문은 느낀대로 써라.

문 9. 다음 단어의 표기와 발음이 어문규정상 옳지 않은 것은?⁹⁾

- ① 얇다[얄 : 따] ② 짧게[짧게]
- ③ 맑더라[막떠라] ④ 밟고[밭 : 꼬]

문 10. 다음 중 쌍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¹⁰⁾

- ①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 ② 내포되는 종류를 적을 때에 쓴다.
- ③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일 때에 쓴다.
- ④ 시(時)와 분(分), 장과 절을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 쓴다.

문 11.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으로 옳은 것은?¹¹⁾

- ① 낙동강 - Nakdonggang ② 대관령 - Daegwallyeong
- ③ 독립문 - Dongnipmun ④ 압구정 - Apkujeong

문 12.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바르게 된 것으로 묶인 것은?¹²⁾

- ① 비즈니스(business), 라디에터(radiator)
- ② 슈퍼마켓(supermarket), 주스(juice)
- ③ 잠바(jumper), 케익(cake)
- ④ 하모니카(harmonica), 맛사지(massage)

문 13. 다음 중 ‘금빛 게으른 울음’과 심상이 다른 것은?¹³⁾

- 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② 향기로운 종소리
- ③ 꽃처럼 붉은 웃음
- ④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문 14.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고유어의 의미로 맞는 것은?14)

그러나 한두어 종지 가랑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빠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해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씹을 붙여 놓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해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 해도 고 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 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상동경동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게 내려왔다. 거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송맞게소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고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 ① 해 - 새장이나 닭장 속에 새나 닭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막대
 ② 삭정이 - 나무에 붙어 있는 살아있는 가지
 ③ 상동경동 - 조금한 마음으로 몹시 허둥거리는 모양
 ④ 호드기 - 호루라기

문 1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15)

이집트의 나일강에 포악한 악어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강가에서 놀던 한 어린 아이가 악어에게 잡혔다.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악어에게 "제발 살려 달라"고 사정하자 악어는 "내가 낸 문제를 맞히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했다.
 악어가 낸 문제는 바로 "내가 아이를 살려 보낼 것인지, 살려 보내지 않을 것인지를 맞혀보라"는 것이었다. 여자는 평평 울면서 답했다.
 "살려 보내준다고 대답할까, 아니라고 할까요? 그걸 알아맞히면 내 몸도 같이 바칠 것이나 만약 틀린다면 아이를 돌려주세요."
 그러나 아이를 돌려 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악어는 아이를 먹고 난 후 마치 참회하듯 눈물을 흘리면서 서서히 여자에게 다가왔다.

- ① 애매성의 오류 ② 논점전취의 오류
 ③ 논리와 궤변 ④ 논지전개의 오류

문 16. 다음은 어느 행사의 진행표이다. 이를 보고 알 수 있는 행사의 성격은?16)

• 장소 : 대회의장
 • 식순
 - 개회사 : 회장
 - 발표(30분 예정)
 - 질의응답(30분 예정)
 • 주제 : 한반도 평화통일방안
 • 발표자 : 김○○, 한○○, 이○○, 박○○
 ※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발표자 네 명은 각각 자신이 준비해 온 내용을 연단에서 발표하고, 후에 청중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 ① 원탁회의 ② 패널회의
 ③ 포럼 ④ 심포지엄

문 17. 다음은 「춘향가」의 한 대목이다. 이에 알맞은 장단은?17)

들었던 촛불을 내던지고
 “잘 되었구나 잘 되었네, 열녀 춘향신세가 잘 되었네, 책방에서 글 읽을 때는 낮이나 밤이나 보고보고 또 보아도 귀찮로만 생겼기로 믿고 믿고 믿었더니 믿었던 일 이 모두다 허사로군. 설마 설마 허였더니 설마가 사람을 죽이네 그러”
 춘향모친 광기증이 나서 후문으로 우루루루루 들어가더니 칠성단 부어논 물동이를 눈 위에 번쩍 들어서 팡팡 부두치며,
 “백일 정성을 드린다면 아니 된다는 게 없더니 일년이 다 가도록 밤 낮 축수 빌었더니 결인 되여 왔네 그러. 이 삶아 저 모양 허여가지고 왜 여기 왔다. 내 정성이 부족하여 저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도 노천이 되어 영험이 없어서 이러는가. 이제는 잘 되라고 빌어볼 데도 없게 되니 죽었구나 죽었구나! 내 딸 춘향이는 영 죽었네.”
 몇타 절적 주저앉으며 가슴을 팡팡 두드리고 머리도 적적 부딪치며 여광여취 칠성발광 남지서지를 가르킨다.

- ① 진양조 ② 휘모리 ③ 중모리 ④ 자진모리

문 18. 속담 ‘처삼촌 산소 별초하듯’과 의미가 상통하는 한자성어는?18)

- ① 東問西答 ② 首丘初心 ③ 走馬看山 ④ 他山之石

문 19. 다음 중 한자어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19)

- ① 최근(最根) ② 전시(展示) ③ 본래(本來) ④ 기념(記念)

문 20. 다음 중 이 글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20)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盤面)이 얹어서 곰보같이 된다. 얼마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반면은 다시 본디대로 평평해진다. 이것이 비자반의 특징이다.
 비자를 반재(盤材)로 진중(珍重)하는 소이(所以)는, 오로지 이 유연성(柔軟性)을 취함이다. 반면에 돌이 닿을 때의 연한 감촉-, 비자반이면 어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마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흑단(黑檀)이나 자단(紫檀)이 귀목(貴木)이라고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지는 않는다.
 비자반 일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료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 전후인데, 특급은 2천 4, 5백 원, 상차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 데 진진(津津)한 모미가 있다.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이 기약치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형값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지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같이 될 뻔했던 불구 병신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묶는 이야기다.

문 25.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25)

- ① 미국에게 스포츠 정신에 벗어난 행동을 보인 일본선수에게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 ②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여진다.
- ③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④ 불황이라는 먹구름이 걷히고 경기가 호전되는 것이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만은 아니다.

1) ㉠ ㉡ (2014 개정으로 현재는 복수정답이 됨)

㉢ 2012년 시험 당시에 ‘생이 나서 마음이 토라지다’, ‘일에 시달리어서 몸이나 마음이 몹시 느슨하고 기운이 없어지다’,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획을 비스듬히 내려쓰다’의 의미로는 ‘뻘치다’만 써야 했다. 하지만 2014년 ‘뻘치다’도 ‘뻘치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 ‘당기다’는 ‘몹시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 ‘얼굴 등 신체 부위나 상처가 팽팽한 느낌이 들거나 아플 때’ 사용한다. ‘얼굴이 당기다’, “한참을 웃었다니 수술한 자리가 당겼다.”

‘당기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 저절로 끌리다’, ‘입맛이 돋우어지다’,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의 뜻을 갖는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당겼다”, “식욕이 당기다”, “방아쇠를 당기다”, “귀가 시간을 당기다.”

‘당기다’는 ‘붙이 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의 마음에 붙이 땀졌다”, “담배에 붙을 당기다”

[오답해설]

① ‘삼가다’가 기본형이며 ‘삼가하다’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삼가하고’, ‘삼가해야’는 틀린 표현이다. ‘삼가고’, ‘삼가야’로 고쳐야 한다.

③ ‘설레다’가 기본형이며 ‘설레이다’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설레다’로 고쳐야 한다.

2) ㉢ ‘칠칠하다’는 ‘주먹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라는 뜻이다.

3) ㉠ ‘짐을 내리다’의 뜻으로 쓰이는 동사이므로 ‘벗다’의 유의어이다.

벗다: ㉠ 사람이 자기 몸 또는 몸의 일부에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

㉡ 매거나 진 배낭이나 가방 따위를 몸에서 내려놓다.

㉢ 동물이 껍질, 허물, 털 따위를 갈다.

㉣ 의구나 책인 따위를 면하게 되다.

4) ㉠ 성실하지 않다(성실찮다): 어미 ‘-ㅈ’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ㅅ’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오답해설]

㉢ 어간의 끝음절 ‘학’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학’ 앞의 음절이 안올림소리가 ‘ㄴ, ㄷ, ㄹ’인 경우에는 ‘학’가 빠져 ‘ㄴ학(하)지 않다’로 ‘ㄴ학잖다’로 쓴다.

5) ㉢ ‘경기나 싸움 따위에서 상대를 이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은 ‘꺾다’로 ‘꺾어, 꺾어서, 꺾었다’ 등과 같이 쓰인다. 따라서 ‘꺾으면’이 올바른 표현이다.

6) ㉢

[오답해설]

㉠ ‘일찍이’, ‘타국’

㉡ ‘믿음으로써’, ‘것’이요(종결인 경우 ‘것’이요, 연결인 경우 ‘것’이요)

㉣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하다’는 뜻의 ‘오래’는 ‘오래라고’ 쓰지 않는다.

7) ㉢ ‘끼다’의 쓰임에 따라, ‘국토 순례단에 끼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오답해설]

㉠ ‘놀라다’는 ‘놀라다’의 사동 표현이다. 주부들이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놀란 것이므로 ‘놀랐다고’ 해야 옳다.

㉢ 불필요한 파동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너 요즘 허리가 많이 굽은 것(결)’을 보니 통 운동을 안 하는 모양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태어나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형태를 갖추어 어미의 태(胞)로부터 세상에 나오다’라는 의미이므로,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게 되다’라는 뜻의 ‘부화되다’를 사용하여, ‘부화된 병아리’와 같이 써야 한다.

8) ㉣ 용언(동사, 형용사)의 관형사형 (ㄴ, ㄹ) 뒤에 오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오답해설]

㉠ ㉢ 용언(동사, 형용사)의 관형사형 (ㄴ, ㄹ) 뒤에 오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마음대로의 ‘마음’은 명사이므로 조사 ‘대로’를 쓴다.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9) ㉣ 예외로 ‘빨-’은 자음 앞에서 [ㅍ:]으로 발음한다.

[오답해설]

㉠ ㉡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뒤에 이어지는 자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겹받침 [ㄷ, ㄱ,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로 발음한다.

10) ㉠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쓰는 경우는 가운뎃 점(·)이다. 예) 3:1 운동

※ 쌍점을 사용하는 경우: ㉠ 내포되는 종류를 적을 때

㉢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을 붙일 때

㉣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

㉡ 시(詩)와 분(分), 장과 절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

11) ㉢ 대관령[대꺾령] - Daegwallyeong : ‘ㄹ’은 모음 앞에서 ‘ㄹ’로 적으며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ㄴ’로 적는다. 단, ‘ㄹ’은 ‘ㄴ’로 적는다.

[오답해설]

㉠ 낙동강[낙동강] - Naldonggang : 로마자 표기는 된소리되지 않는 표기하지 않는다.

㉢ 독립문[독립문] - 발음에 따라, ‘Dongnimmun’과 같이 적는다.

㉣ 압구정[압구정] - 된소리되지 않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 ‘Apgujeong’으로 적는다.

12) ㉢

[오답해설]

㉠ 라디에터 → 라디에이터, ㉢ 케익 → 케이크, ㉣ 맛사지 → 마사지

13) ㉣ 단순한 시각적 감상

‘금빛 게으른 울음’은 황소의 울음소리를 금빛으로 표현한 것으로,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산지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이다.

㉠은 청각의 시각화 심상, ㉡는 청각의 후각화 심상, ㉢은 청각의 시각화 심상이다.

14) ㉠

[오답해설]

㉢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 상동경동: 어떤 일을 자세히 하지 않고 대충대충하는 모양

㉣ 호뜨기: 봄철에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고루 비틀어 뽑은 껍질이나 껍질만 밀질 토막 따위로 만든 피리

15) ㉢ 절로 착한 채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한다. ‘악어의 눈물’이란 많은 거짓 눈물을 뜻하며 위선의 상징으로 고대 이집트의 전설에서 유래했다. 들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 악어의 껍데기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악어의 침샘과 눈물샘의 신경이 뒤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활한 악어의 태도가 여간 잔인하고 알미운 게 아니다. 하지만 평소 사람들이 들먹이는 논리란 것도 사실상 자신의 주장을 들러대어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억지 아닌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지 돌아켜 봐야 할 일이다. [출처] 악어의 눈물 작성자 신세계

16) ㉣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이라는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발표하는 행사이다. 토의의 참가자들이 분야별 전문가라는 것과 간접식 발표 후 청중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것은 ‘심포지엄’의 성격이다.

17) ㉢ 춘향가 중 ‘어사와 장모’ 대목 중의 한 부분으로 중모리가 사용된 부분이다. 중모리 장단은 주로 서술적인 대목이나 서정적인 대목에 많이 쓰인다.

★ 판소리 장단의 속도(빨라지는 순으로): 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 → 휘모리

18) ㉢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은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주마간산(走馬看山):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펴지 아니하고 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해설]

㉠ 동문서답(東門西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대답하다.

㉡ 수구초심(首丘初心): ‘어우가 죽을 때 제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 타산지석(他山之石):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패까지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

19) ㉠ 최근(最近): 가까울 근(近)을 사용하여야 한다. ㉢ 얼마 되지 않은 지나간 날부터 현재 또는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 ㉣ 거리 따위가 가장 가까움

[오답해설]

㉡ 전시(展示):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임.

㉢ 본래(本來): 사물이나 사실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

㉣ 기념(紀念): 어떤 뜻있는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다.

20) ㉢ 위고의 『레 미제라블』은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빵을 훔치다가 19년이 옥살이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처를 딛고 특급품이 되는 것과 가장 유사한 내용이다.

21) ㉣ 이 시는 한시적인 아름다움의 소멸을 바라보는 시적 자아의 비애를 표현한 작품으로, ‘모란’은 실제라는 뜻인 동시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대표한다. 이 시는 ‘봄을 기다림 - 봄의 상실 - 봄을 기다림’이라는 순환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빈칸에는 두 번째 문장과 ‘지상의 아름다움’과 대비시키는 시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하늘의 아름다움’이, 두 번째 빈칸에는 문맥상 ‘죽지도’와 같은 의미인 ‘소멸’이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 빈칸에는 앞 문장과 대비되는 관계이므로 ‘영원’이 들어가며, 마지막 빈칸에는 문맥상 ‘기쁨’이 들어가야 옳다.

22) (이게 왜 국어인가... 복원의 문제인가... 허허 참...)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67조 제1항)

‘아버지가 꼭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닐 수도 있어서

[오답해설]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69조)

㉣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제2항)

23) ㉢

㉠ 첫 단락 맨 마지막 문장에 조선후기 수많은 요리서에 요리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 두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문장에 요즘엔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 서울식 추탕과 남도식 추어탕의 가장 큰 차이는 재료를 통째로 넣느냐 갈아서 넣느냐의 차이이다.

24) ㉢ 연쇄적 방식: 앞 구절의 말을 다음 구절에서 받고, 다음 구절의 말은 그 다음 구절에서 받는 식으로 글을 배열하는 전개방식을 말한다. 주어진 글은 앞 문장의 말을 계속 이어받는 식의 연쇄적 전개방식에 해당한다.

[오답해설]

㉠ 인과적 방식: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 힘이나 이러한 힘에 의해 결과적으로 초래된 현상에 관심을 두는 전개방식을 말한다.

㉢ 점층적 방식: 글의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 예시적 방식: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개념 등을 구체화하는 진술방식을 말한다.

25) ㉣

- ①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등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이는 조사이고, '에'는 '국가' 등과 같은 무정물에 쓰인다. 따라서 '미국에게' → '미국에'로 고지거나 '미국선수에게'로 고친다.
 ② 보여진다 : '보이다 + 어지다'의 이중 파동이다. 따라서 '보인다'로 고친다.
 ③ 존칭의 대상은 '선생님'이지 '말씀'이 아니다. 따라서 '계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있겠습니까' 또는 '있으시겠습니까'가 올바른 표현이다.

나래의 모든 자료 여기 ↓

<http://cafe.daum.net/naraeyoujin>

2016년, 나래국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7월 대비 총정리 Week 특강(1일 무료특강) : 2015년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적중률 총정리

2015.7.3(금) 14:00~18:00 KG패스원

- 2015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일행
+ 국회직, 경찰 등의 기타 직렬까지 적중 분석
- 2015 기출을 통해서 본 "2016 공무원 국어의 변화 예고"
- '나래국어' 튜토리얼 공개! - 마인드맵, 독해 알고리즘, 333암기법, 퍼즐연상 암기법

특전! - 나래카페 특별 회원으로 등업!
(특별 회원은 2016년 제작되는 나래 암기 워크북 시리즈 모두 무료)

7월 개강! 나래이론+300제 (N수 추천)

2015.7.10(금) 18:40~22:20 주1회 4T * 8주

- N수에게 강추하는 이론과 문제풀이 병합 단과
- 이론에서는 빈틈이 어딘지 꼼꼼하게 다시 체크하며 약점 보완
- 다양한 난도의 단원별 문제로 구성된 300제 문풀

특전! - 국가직/서울시/지방직 대비 나래동형을 들은 재도전자들은 교수 장학생으로 무료 수강
(가장 중요할 때 저를 선택하신 분의 재도전, 돕겠습니다)

7월 개강! 시작하는 사람들의 나래국어 (실용국어 - 문법과 규정)

2015.7.10(금) 9:00~13:00 주1회 4T * 8주

- 가장 쉽게, 효율적으로 문법과 규정 이론을 시작하고 끝낸다!
- 판서와 필기 시간을 줄인 팍~찬 강의 (PT수업과 완벽한 자료)
- 떡먹여주는 워크북 과제물
(과제물을 완성하면 필기! 자습 설계 고민 필요 없음)

국어 이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려면, 우리의 암기 및 사고 방식을 고려한 학습방식이 필요합니다. 암기 요소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시간을 계산해 복습해 줘야 하고(3.3.3 암기법),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샘플로 반복 훈련을 한 뒤 순차적으로 범위와 난도를 높여가며 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32시간에 이루어 집니다!

7월 개강! 시작하는 사람들의 나래국어 (독해 - 비문학과 문학)

2015.7.6(월) 18:40~22:20 주1회 4T * 8주

- 2016년, 출제 비율 1위 영역인 독해를 잡아라!
- 화제의 '나래 독해 알고리즘'을 출간 전에 시크릿 프린트로 공개!
- 발문별로 순서를 구축하여 속도와 정확도를 함께 잡기
- 정답과 매력적 오답의 변별 능력 만들기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도, 기적은 일어난다.
- 카페 공지에서 독해 알고리즘 출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증정본 드림